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한강, 서울

서울기록원 제1전시실

기억이 흐르다

Hangang River, Seoul Memory Flows



전시를 열며

한강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자연이자 역사입니다. 조선이 건국(1392)되고 한양이 수도가 된 이래 500여 년간 한강은 문화와 사회,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한강의 나루 일대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상업지대가 형성되었고, 사대부들은 한강 인근에 정자를 짓거나, 배를 띄워 풍류와 경관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아픔을 겪기도 한 한강은 전쟁 이후 재건사업과 1960년대 한강개발사업으로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988년에 서울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을 통해 도시기반 시설과 체육 시설 등이 들어섰습니다. 이렇듯 한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교통과 문화의 요지要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과 발전의 이면裏面에는 부작용이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훼손되었고, 한강 변의 모래사장이 사라지면서 한강에서 즐기던 강수욕, 스케이트 타기 등의 소소한 즐거움은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가꾸어진 한강시민공원과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한강은 다시금 서울시민의 '힐링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서울기록원은 거대한 '기억창고'인 한강을 둘러싼 서울의 공공기록과 시민들의 기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울의 중심인 한강의 경관 변화와 서울시민 삶의 변천사를 살펴봅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한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Hangang River embodies the colossal nature and history that runs through Seoul, the hear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five centuries since the Joseon Dynasty was founded (1392) and Hanyang (Seoul) became its capital, Hangang River has been the center of culture, society, economy, and transportation. People gathered around the river's ports and formed commercial districts. Aristocrats built pavilions near the river or set a boat afloat to appreciate culture and arts, and enjoyed the tranquil scenery. Hangang River witnessed great ordeals from the Korean War that broke out in 1950. After the war, Hangang River began to change in shape through national restoration projects and Hangang River development projects in the 1960s. In addition, urban infrastructures and sports facilities were constructed through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fter the city was selected to host the 1988 Olympic Games. As described, Hangang River has played the role of a major transportation and cultural hub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Meanwhil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had its side effects.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d the ecosystem. The sandy beach along the river disappeared. Small joys, such as bathing by the river and skating on it during the winter when it froze over, became vestiges of the past. However, Hangang Park and various festivals turned Hangang River into a famous 'healing space' for the citizens of Seoul.

Seoul Metropolitan Archives examines the changes in the landscape of Hangang River, the main artery of Seoul, and the changes in the lives of Seoul citizens by sharing their memories and the public records of Seoul around Hangang River, which is a vast 'archive of memories' I hope we give everyone the chance to reflect on what Hangang River means to us.

Prologue

서울의 중심, 한강

Prologue. Hangang River, The Center of Seoul

"너는 어디서 왔니?"

검룡소儉龍沼가 한강의 발원지로 공인되기 이전 오랫동안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의 오대산 우통수于筒水가 한강의 발원지로 전해져 왔다. 1918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국토 실측 및 조사를 통해 발간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서 "한강의 수원水原은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이고, 하구까지의 연장은 514.4㎞"라고 발표하면서부터 한강 발원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발원지라는 것은 물줄기 하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지점이라는 개념에 따라 1987년 당시 국립지리원이 금대봉 북서쪽 계곡(검룡소)를 한강 발원지로 공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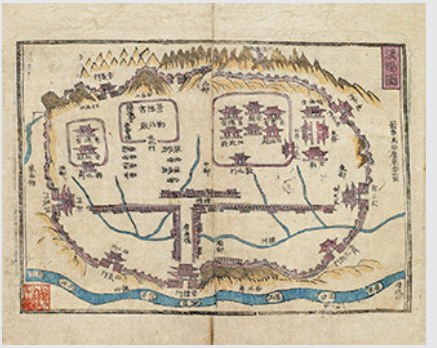
이덕수, 『한강개발사』, 2016



❶

"네 이름이 뭐니?"

한강은 시대별로 불리는 명칭이 달랐다. 서울시사편찬위원회(현 서울역사편찬원)에서 편찬한 『서울지명사전』에서는 한강의 어원은 우리말에서 큰 물줄기를 의미하는 '한가람'에서 비롯하였다고 한다. '한'이란, '크다'라는 뜻의 접두사이며, '가람'은 강의 옛말이다. 즉 큰 강이라는 뜻이다. 한강은 삼국시대 초기까지는 '대수帶水'라 불렸고, 광개토대왕비에는 '아리수阿利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에서는 '욱리하郁里河'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❷

❶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❷ 〈한양도〉≪천하도≫,1822, 32.8x40.6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한강 각 지점의 명칭을 살펴볼 수 있다. 한강으로 표시된 곳이 한강진 주변에 한정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Part1

한강의 다리_서울을 잇다

Bridges over Hangang River_Connecting Seoul

1-1 한강교통의 기점基點, 나루

선사시대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부한 강 주변에 모여 살기 시작했고, 삼국시대부터는 중요한 교통로이자 생활 중심지였던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한강은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서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고, 한강이 세금과 곡식 등을 옮기는 조운로漕運路로 사용되면서 한강을 비롯한 전국의 강가에는 나루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한강 나루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면서 다양한 물건들과 상인들이 오가는 포구가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❶



❷

1-2 한강다리 이야기

1900년 한강철교 건설을 시작으로 걸어서 한강을 건널 수 있는 인도교인 한강대교가 1917년 준공되었다. 한강을 건너기 위한 주요 교통수단이 배에서 기차와 자동차로 바뀌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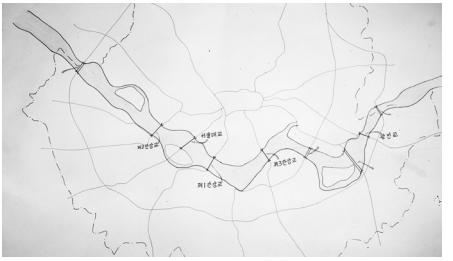
이후 1960년대 경제개발의 본격화, 고속도로의 건설, 기술의 도약 등 서울의 성장과 맞물려 한강 위의 다리들도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❸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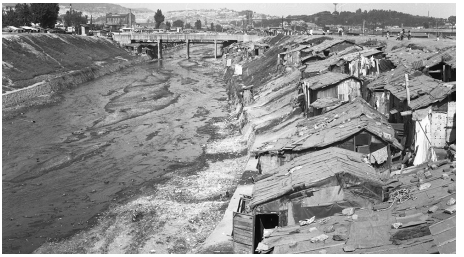
❺

❶「서울, 어제와 오늘_마포항」,『서울시보』제31호, 1982. 11. 11
❷ 해방 당시의 마포나루터, 1946, 국가기록원
❸ 제3한강교 위치도,1965, 시설계획과, 75x105cm
❹ 한강다리 건설현장, 1975
❺ 한강교량 위치도, 1969, 서울역사박물관

Part2

도시개발계획과 한강의 변화_서울을 건설하다

Urban Development Plan and Changes of Hangang River_Building Seoul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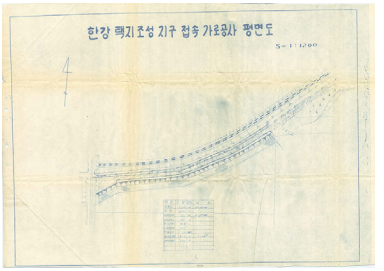
❷

2-1 한강개발과 서울의 발전

1960~70년대 서울시는 장마철이 되면 매번 넘치는 한강을 수습하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 주변을 메우고 강변에 둑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개발계획은 한강을 정비하여 새로운 땅을 마련함과 동시에 강변 근처의 판자촌을 없애고, 공공시설과 고층 건물을 세워 도시의 미관을 가꾸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1980년대에는 서울시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고, 여가 공간과 위락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제24회 서울 올림픽 준비로 한강종합개발을 시작하여 고수부지와 도로 등을 만들었고, 시민의 여가 공간도 넓어졌다.



❸



❹



❺

❶ 서부이촌동 판자촌, 1966
❷ 서부이촌동 수해 현황, 1966, 서울역사박물관
❸ 서울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1966, 도시계획위원회
❹ 한강 택지 조성지구 공사 평면도, 1962, 도시관리과, 77x53cm
❺ 서울특별시 기본계획 가로망도, 1969, 시설계획과, 154.5x162cm

저자도의 모래가 압구정으로 간 까닭은?

1969년 현재 압구정 지구의 땅 4만8천여 평을 메꾸기 위해 상당량의 모래가 필요하였다. 당시 한강에는 저자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곳은 여름이면 시민들이 나룻배로 건너와 휴식을 즐기고, 겨울에는 아이들이 썰매와 스케이트를 타던 휴양지였다. 현대건설은 저자도의 모래를 파내어 압구정 지구 건설에 쓰기로 하였다. 저자도의 모래밭 80㎢가 압구정으로 옮겨졌고 1972년 공사가 끝날 즈음에는 저자도의 대부분이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압구정을 포함한 한강 변을 메워 생긴 대규모 땅에 반포, 청담, 도곡, 이수 지구를 만들어 아파트 단지로 지정하였다. 때마침 1979년 성수대교가 개통되며 저자도 모래 위에 지어진 압구정 아파트는 부유층 거주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❶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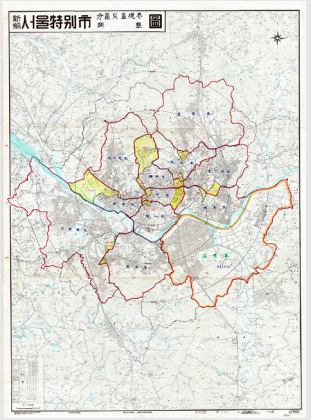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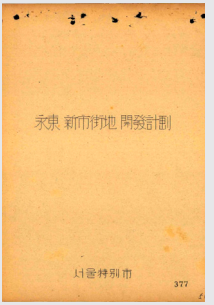
❶ 한강 모래 채취, 1970년대
❷ 반포 아파트단지 전경, 1977, 서울역사박물관
❸ 한강 변 아파트단지(이촌지구), 1989, 국가기록원

학교도, 기업도 모두 모두 영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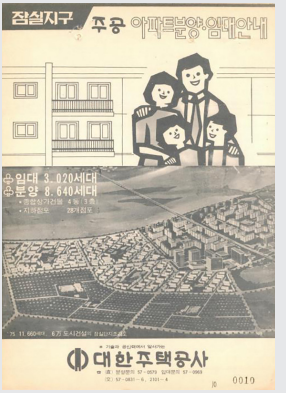
강남개발이 본격화되며 무역협회는 삼성동에 6만3천5백여 평을 사들여 종합전시관을 세웠고 서울역 앞에 모여 있던 고속버스터미널이 하나로 통합되어 서초구 반포동으로 옮겨갔다. 강남의 아파트로 중산층이 이동하자 강북의 명문 중고등학교와 성모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종합병원들도 함께 강남으로 옮겨갔다. 관세청, 조달청, 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정부기관 또한 강남에 자리를 잡으며 오늘날 강남 일대의 풍경을 형성하게 되었다.



❶



❷



❸

1960~70년대 한강개발

- 1962년 한강 공유수면매립 시작
- 1965년 제2한강교(양화대교) 준공
- 1967년 한강개발 3개년 계획 발표, 강변1로 (제1한강교~여의도) 개통
- 1968년 여의도 윤중제 건설 착공, 밤섬 폭파
- 1969년 제3한강교(한남대교) 준공
- 1970년 서울대교(마포대교) 준공
- 1971년 잠실섬 한강 물막이 작업 완료
- 1972년 잠실대교 준공
- 1973년 영동대교 준공, 노들섬 (당시 중지제1도) 매립
- 1976년 천호대교, 잠수교 준공
- 1977년 제방축조사업으로 난지도 육속화
- 1979년 성수대교 준공

※ 자료제공 : 서울역사박물관

❶ 서울특별시 분구分區 및 구경계 조정도, 1975년 경, 행정과, 78.8x108.5cm
❷ 영동 신시가지 개발계획, 1975, 도시관리과
❸ 잠실주공아파트 분양 홍보물, 1975, 대한주택공사

한강종합개발의 기본이념

1.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 올림픽을 대비한 도시 환경 개선
2. 시가화市街化 팽창膨脹으로 각박해진 인간성 형성에 유화감柔和感을 주고 하천애호河川愛護의 정신함양精神涵養, 새로운 공간의 창출
3. 공공성公共性, 공간성, 광역성廣域性을 가진 건전한 시민 레크리에이션공간 확보
4. 본연의 한강 기능으로 회복하면서 한편으로는 잠재가용潛在可用 자원을 경제적으로 개발 이용
5. 이수利水, 치수治水의 안전성과 주변 지역의 환경정비 그리고 강변도로 개발, 도시교통난 해소

출처 : 한강종합개발사업 건설지



❶



❷



❸



❹



❺

❶「새 한강 탄생, 종합개발 대역사 마침내 준공」,
「서울시보」 제165호, 1986. 9. 11
❷, ❸ 한강의 시민공원화, 1980년대

❹ 한강종합개발 사업 준공 기념 승차권, 1986
❺ 한강종합개발 사업 준공 기념 우표, 1986

2-2 달라진 한강의 얼굴

추억 속의 한강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한강의 모래사장에서 여름휴가를 즐기곤 하였다. 1960년대 한강 개발이 시작되면서 한강 변 모래사장의 낭만은 사라졌다. 바다 모래사장 못지않게 풍성했던 모래밭은 제방 건설과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 사라져갔다. 한강에서의 추억도 소중했지만, 여름 장마철만 되면 홍수로 몸살을 앓던 한강에 개발은 불가피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겪은 한강은 스스로 예전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한강은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서울의 脈 漢江은 흐른다

여름에 水泳 겨울엔 스케이팅
船上서 술잔기우리는 浪漫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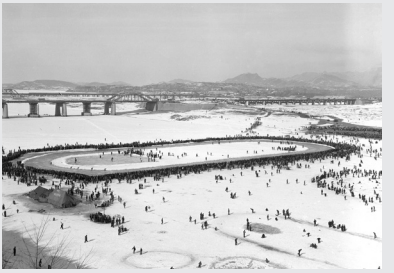
❶



❷



❸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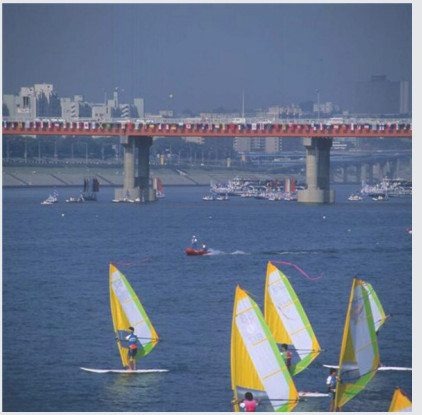
❶「어제의 한강을 되돌아본다」,『서울시보』제27호, 1982. 10. 4
❷ 뚝섬 유원지, 1956, 서울역사박물관
❸ 뚝섬 유원지의 여름 풍경, 1962, 국가기록원
❹ 한강 빙상대회 경기모습, 1956, 국가기록원

서울 올림픽과 한강의 변화

1981년에 제24회 서울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고, 한강종합개발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도시의 인구집중 문제 해결, 미관 개선, 시설 개발 등 서울의 이미지 개선이 목적이었다. 당시 대통령은 '서울 지역 내 한강의 골재와 고수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❶



❷



❸



❹

❶, ❷ 서울 올림픽 기념 한강 축제, 1988

❸ 올림픽대교 주탑 상량식, 1988
❹ 올림픽대로 개통, 1986, 서울역사박물관

개발의 이면裏面



❶



생태계·경관보호 뒷전…개발에 밀리는 한강의 섬들

당정섬 2년뒤면 자취 감춘다

❷



❸



❹

❶ 신곡수중보 근처의 녹조현상, 2015, 서울환경연합
❷「생태계·경관 보호 뒷전, 개발에 밀리는 한강의 섬들」, 『한겨레』, 1990. 7. 1
❸ 한강 환경보호 청소선, 1990
❹ 반포 한강공원 자연성 회복사업 결과, 2020, 서울환경연합

한강 개발사업을 통해 많은 것이 변하였다. 한강 변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강 옆으로는 도로가 지나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래사장 대신 고수부지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도 있었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제방, 수중보 등으로 인해 한강 자연 생태계는 큰 변화를 겪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된 만큼 환경오염도 뒤따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고, 한강은 자연의 모습을 많이 회복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Part3

한강시민공원_서울을 품다

Hangang Park_Embracing Seoul

한강 고수부지에 체육시설과 공원을 만들면서 시민의 여가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과 한강공원의 모습은 또 한 번 바뀌게 되었다. 한강에서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도 매년 개최된다. 계절별, 공원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테마의 축제가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한강공원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대한 휴식공간이며,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다.



❶



❷

❶ 여의도 지구의 야경, 1988
❷ 여의도 공원 유람선 선착장, 1987
❸ 반포 한강공원 메밀꽃, 1996
❹ 반포 한강공원 서래섬 유채꽃 전경, 한강사업본부
❺ 여의도 한강공원 전경, 2020, 서울역사박물관



❸



❹



❺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2006년부터 추진한 도심 개선 프로젝트로, 한강 본연의 생태적 기능 회복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한강 기능을 새롭게 만들고자 한 것이다.
사업의 추진목표는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한강을 보다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 △ 한강이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잠재력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한강을 서해안 시대를 향한 관광 네트워크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❶


❷


❸

❶ 반포대교 달빛무지개 분수, 2015
❷ 세빛섬, 2020
❸ 광진교 8번가, 2020, 서울연구원

한강에서 열리는 축제


❶


❷


❸


❹


❺

❶ 올림픽 기념 한강축제, 1988
❷ 한강 새천년 맞이 축제, 1999
❸ 여의도 벚꽃축제, 2015, 서울연구원
❹ 서울 세계불꽃축제, 2019, 서울연구원
❺ 서래섬 메밀꽃 축제, 한강사업본부

Epilogue

기억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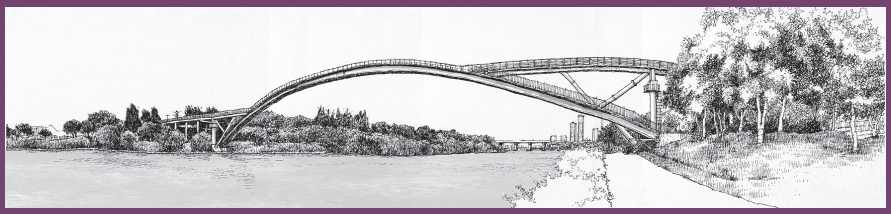
Epilogue. Memories and Records

서울이 현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의 흔적들이 기록된 장소이자, 시민들이 만들어낸 삶과 문화를 모두 기억하는 공간. 바로 그곳이 서울의 거대한 '기억창고' 한강이다. 도시개발의 성장통成長痛을 고스란히 겪은 한강은 '한강종합개발'이라는 새 단장을 거쳐 '올림픽'이라는 국제무대에 서울을 데뷔시켰으며, 이후 여러 가지 정책과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을 잇고, 모이게 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한강은 오늘날까지 서울의 기억과 기록을 오롯이 간직한 채 시민들의 안식처로 시민들의 삶과 함께 흐르고 있다.

서울은 '한강'을 기억합니다



한강과 노들섬, 2021, 정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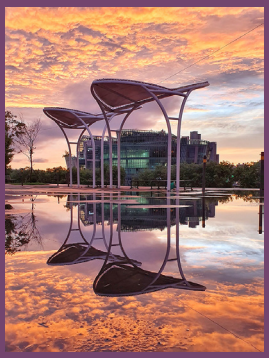
선유도공원과 선유교, 2021, 정연석



매일 봐도 매일 예쁘다, 2021, 김경민



여름밤, 2021, 유지연



거울나라의 세빛섬, 2019, 황정욱

한강, 서울 기억이 흐르다

Hangang River, Seoul Memory Flows

서울기록원 제1전시실
2021. 9. 17(금) 개막

관람 안내

일시 2021년 9월 17일(금)부터
장소 서울기록원 2층 제1전시실
관람 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7:00
관람 요금 무료
휴원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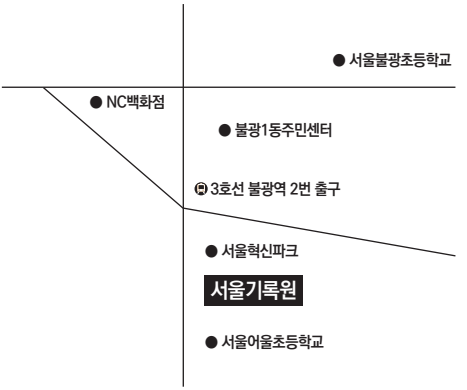
지하철 불광역 2번 출구(3, 6호선)
버스 한전성서지사, 녹번동 푸르지오 정류장 하차
지선(567, 790, 799, 7720, 7734)
간선(701, 704, 705, 708, 720, 741, 773, N37)
광역(9710, 9710-1, 9703, 9709)

주차

주차장 운영 시간 6:00-24:00
최초 30분 무료(초과 5분당 250원)
토·일요일 및 공휴일 무료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서울기록원



문의

전화 02-350-5600
홈페이지 https://archives.seoul.go.kr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